

배우 유태오 “이 영화가 내 인생 바꿀 줄 알았어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한국 남자 해성 역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 오르기도 “오디션 제안 안 들어온 작품...직접 나서”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시나리오 마지막 장면 보고 눈물 핑 확산”

배우 유태오(43)는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수상자는 ‘오픈 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였지만, 한국 배우 최초로 이 부문 후보가 됐다는 건 새 역사였다. 이 작품은 오는 10일(현지 시각)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작품·각본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어쩌면 ‘패스트 라이브즈’는 유태오 경력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흥미로운 건 애초에 이 영화가 유태오에게 오디션 제안도 들어오지 않은 작품이었다는 점이다. 유태오는 어쩌다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걸까. 이 작품의 어떤 면이 그렇게 끌렸던 걸까. ‘패스트 라이브즈’(3월6일 공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유태오를 만났다. 그는 “국내 개봉이 6일이고 며칠 뒤에 아카데미 시상식도 열리니까 마치 월드컵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다”고 했다.

유태오는 이어 “이 영화가 배우 생활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 될 거라는 걸 촬영 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셀린 송 감독은 ‘해성’ 역 오디션을 본 배우가 30명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태오는 30 번째로 오디션 테이프를 보낸 배우였다. 해성은 극 중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매우 평범한 한국 남자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태오는 어린 시절을 독일 등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남자와는 거리가 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역할에 유태오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건지 모른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본 유태오는 이 역할을 반드시 해내고 싶었다고 했다.

“마지막 장면을 읽는데 그림이 탁 그려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음악이 깔리면서 이

렇게 끝나겠지, 하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전에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눈물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출만 잘 된다면 정말 멋진 영화가 될 것 같았어요. 게다가 이 영화를 ‘미나리’를 만든 A24와 ‘기생충’을 만든 CJ ENM이 합작한다는 겁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이 한국 남자가요. 뭔가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패스트 라이브즈’는 12살 어린 시절 가깝게 지냈던 소녀와 소년은 소녀의 이민으로 헤어진 뒤 12년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만난다. 화상 채팅으로 일상을 공유하던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이 끊기고 다시 한 번 12년이 흐른 뒤 미국 뉴욕에서 재회한다. 유태오가 연기한 게 바로 12년 뒤 대학생이 된 해성고 또 12년 뒤 직장인이 된 해성이다. 송 감독은 해성 캐릭터에 대해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게 중요한 인물인데, 유태오의 미소에서 소년을 봤다고 했다.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유태오는 송 감독과 화상 연결로 2차 오디션을 봤다. 세 시간 반에 걸친 긴 오디션이었다. 송 감독은 유태오에게 시나리오 속 해성이 등장하는 장면을 모두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유태오는 각기 다른 버전으로 세 번 반복해서 연기했다. 유태오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할 때마다 자신감이 붙었어요. 감독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내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디션이 끝난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오디션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그렇게 합류해서 완성시킨 ‘패스트 라이브즈’가 이뤄낸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취들이다. 유태오는 이 영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생을 바꿔놨다고 했다. 하



나는 유태오의 필모그래피이고, 다른 하나는 연기 방식이다.

먼저 필모그래피. ‘패스트 라이브즈’ 이전 유태오는 할리우드 등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엔 거의 대부분 오디션을 봐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 절반 정도는 역할 제안이 들어오고, 절반 정도는 오디션 제안이 온다고 했다. “물론 전 여전히 오디션을 봐야 하는 배우이고, 언제든 오디션을 볼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퍼도 많이 들어오니까 참 감사하죠. 제 연기력을 인정한다는 얘기니까요.”

두 번째는 연기 방식. ‘패스트 라이브즈’ 이

전 유태오는 연기를 매우 기술적으로 접근했다고 했다. 시나리오·캐릭터 분석법에 바탕을 두고 연기를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 ‘인연’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고민하다 보니 연기 역시 인연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됐다고 했다. “제가 만나는 캐릭터 역시 저와 인연이 있을 거예요. 전생에 제가 그 캐릭터처럼 살았을지도 모르죠. 캐릭터를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려 할까요. 굉장히 정신적인(spiritual) 것으로 보게 됐어요. 물론 이 방법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해요. 제 망상일 수도 있거든요.(웃음)”



미노이, ‘노쇼논란’ 새 국면 가져다주는 ‘전자서명’

가수 미노이(26·본명 박민영)의 광고 촬영 불참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6일 디스패치는 미노이와 소속사 AOMG 간의 광고 촬영 계약 과정의 전말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4일 미노이는 “기사 내용과 달리 2시간 전에 광고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라며 “저는 이번 광고건에 계약서 내용 공유도 받지 못했고 언제 계약서가 쓰여졌는지도 알려주시지 않았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있는 걸 보고 이게 왜 들어왔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이후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바로 보여주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직접 찾아가 열람했다. 이때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인 가져다주는 ‘전자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디스패치가 공개한 지난해 8월 메시지에서 소속사 대표는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광고 계약 내용을 전달한다. 미노이는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한다. 다른 메시지에서 지난해 12월 소속사 직원과 미노이는 광고 기획안을 공유하고 내용을 조율한다.

지난 1월 미노이가 정산서를 확인하다가 소속사 대표에게 “2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이라며 “계약서에 기간이랑 세부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하다”고 요청한다. 이에 대표는 “난 2억이라고 한 거 같은데.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라고 한다. 미노이도 그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월요일에 만난 미노이는 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AOMG와 미노이가 모델 계약을 맺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 P사가 전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장 이미지가 찍혀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소속사는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디스패치에 전했다.

미노이는 광고 촬영 전날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 한다”고 못 박았다. 소속사 대표는 미노이에게 사정하다가, 촬영 당일 “광고는 안 찍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대해 소속사는 인정했고, 미노이는 부인했다. 소속사는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을 미노이와 5:5로 나누기로 했다. 미노이는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며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미노이의 각종 논란은 지난달 5일 새벽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시작했다. 황실수설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팬들의 걱정을 샀다. 본인 소셜미디어에 “저의 인생의 기준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두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 그걸 놓고 나를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적기도 했다.

이후 P사의 광고 촬영이 예정 돼 있었으나, 약속 시간 2시간 전 돌연 핑크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P사 대표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광고 촬영장에 모델이 노쇼를 해서 또 법적 분쟁을 해야 할 것 같다. 대기업 상대라 걱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는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 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로, 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광고 촬영에 불참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뉴스스



가수 웬디, ‘키치·세련美’ 가득한 콘서트 클립 공개

첫 솔로 앨범과 다른 매력 예고

그룹 ‘레드벨벳’ 웬디가 티저 이미지와 콘서트 클립을 공개했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웬디는 이날 0시 레드벨벳 각종 SNS에 키치하면서도 세련된 웬디의 감각적인 무드를 담은 티저 이미지와 콘서트 클립을 오픈했다.

특히 무표정한 얼굴 속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웬디는 이번 컴백을 통해 첫 솔로 앨범과는 다른 매력을 예고했다.

더불어 이번 앨범에 수록된 ‘퀸 오브 더 파티(Queen Of The Party)’는 리드미컬한 드럼과 통통 튀는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팝 댄스 곡이다. 가사에는 나만의 공간에서 어떤 방해도 없이 혼자만의 파티를 열고 스스로 퀸(Queen)이 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한편, ‘위시 유 헬’은 오는 12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된다. 현재 각종 온, 오프라인 음반 매장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하다.

뉴스스

방탄소년단 슈가 삼자대면 콘서트, 내달 IMAX서 본다

내달 10일 CGV 등서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 더 무비 개봉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의 첫 단독 월드 투어 앙코르 콘서트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 더 파이널(SUGA | Agust D TOUR ‘D-DAY’ THE FINAL)’가 스크린으로 옮겨진다.

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국내 배급사 CGV 아이스콘(ICECON)에 따르면,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 더 무비(SUGA | Agust D TOUR ‘D-DAY’ THE MOVIE)’가 오는 4월10일 국내 CGV와 해외 극장에서 개봉한다.

슈가는 군 복무 시작 전인 지난해 4-6월 10개 도시에서 총 25회 공연에 걸쳐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를 열어 29만명을 만났다. 같은 해 8월엔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열어 3일간 3만8000여 명의 팬과 소통했다.

이번 실황 영화는 슈가의 월드투어 피날레를 장식한 앙코르 콘서트 현장을 영화화했다.

해당 월드 투어는 슈가 정체성의 ‘삼자대면 콘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가가 솔로 아티스트 자이언 어거스트 디 그리고 본인인 민윤기를 동시에 아울렀다.

그래서 ‘해금(解禁)’의 자리였다. 가수의 노래는 가장 순수해졌을 때 노래의 목소리만 들린다. 금지하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자, 해방이기도 한 셈이다. 그때 노래는 슈가, 팬들, 그리고 누구 것도 아니고 그저 노래의 것이다. 즉 노래가 부른 노래다. 그럴 때 노래에 쏟아부은 상처, 아픔,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노래 홀로 스스로를 부르는 것이다.

슈가가 이 투어에서 슈가, 어거스트 디 각각의 자아를 분리한 건 이런 노래 미학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래가 자기 품을 떠나 누구 것인 지 모르는 경지에 이르러면 타자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슈가 | 어거스트 디 투어 ‘디-데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리이자 그



위로의 순간에 아미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었던 이유다. 슈가가 거침 없는 욕을 내뱉을 때 객석이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낀 까닭이기도 하다.

이번 영화는 이런 콘서트장 기운의 몰입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탄소년단의 실황 영화로는 최초로 아이맥스(IMAX) 특별관에서 상영된다. RM, 지민, 정국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슈가가 함께한 듀엣 무대도 다시 감상할 수 있다.

차승원·김선호·김강우 ‘폭군’ 하반기 디즈니+ 공개



‘신세계’ ‘마녀’ 등을 만든 박훈정 감독이 4부작 시리즈로 돌아온다. 디즈니+는 새 시리즈

‘폭군’을 하반기에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폭군’은 이른바 폭군 프로그램의 마지막 섀

플이 배달 사고로 사라진 후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서로 쫓고 쫓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물이다. 배우 차승원이 폭군 프로그램 관련 세력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전직 요원 ‘임상’을, 김선호가 폭군 프로그램을 활용해온 ‘최 국장’을 연기한다. 김강우는 폭군 프로그램의 마지막 섀플을 폐기하려는 해외 정보기관 소속 ‘폴’을, 신에 조윤수가 섀플 탈취를 의뢰 받은 기술자 ‘자경’을 맡는다.

뉴스스